

# 미국과 중국에서의 한국전쟁 사진과 기억

## 미국과 중국에서 발간된 사진화보집의 구성과 표상양식 분석

김형곤\*

미국과 중국에서 발간된 한국전쟁 사진화보집을 비교 분석하여, 각 사진화보집이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전쟁의 의미와 그 의미를 사진으로 표상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사진화보집은 1954년에 미국 해외참전용사 협회에서 발간한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와 1959년 중국 해방군화보사에서 발간한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이다. 한국전쟁 사진화보집에 대한 분석은 한국전쟁에 관한 공식적인 기억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이 다른 만큼, 사진을 통해 표현되는 한국전쟁의 기억도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 발간된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일관된 스토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우세한 전쟁 상황을 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사진들도 상징성보다는 기록성이 강한 사진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 발간된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일관된 스토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은 한국전쟁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개별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시각화하는 상징성이 강한 사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전쟁이 사실은 현재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재해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사진, 상징성, 공식기억

### 1. 문제 제기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거의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국전쟁을 몇몇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매체 중 하나가 사진이다. 수전 손택(Susan Sontag, 2003/2004, 135쪽)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진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과거를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사진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원자폭탄 실험 뒤에 생긴 버섯구름,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의 사진 등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환기하는 중요한 시각적 이미지들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진들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무엇으로, 어떻게 기억하게 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홀(Hall, 1997, pp.24~26)에 의하면 사진과 같은 영상물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반사적 접근(reflective approach),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적 접근(intentional approach), 의미를 표상화하는 형성적 접근(constructionist approach) 등이 모두 가능한 매체이다. 먼저 사진은 과거의 사실, 객관적 증거 또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또한 사진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른 한편 사진은 객관적 증거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해석을 내리는데 여기에서 의도적·형성적 재현이 실천된다. 사진가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틀을 짜고, 편집하고, 내용을 전개하고, 설명하는 일련의 제작 과정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상징화하는 기능까지 실천한다. 그러므로 사진은 단순히

\*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hgkim@tu.ac.kr)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쟁의 현장을 보여주는 전쟁사진도 단순히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전쟁의 진실로 믿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전쟁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국민들이 전쟁을 특정한 방향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사진이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전쟁의 중요한 참여자였던 미국과 중국에서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쟁을 기록한 사진화보집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 자국 군대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국 국민들이 한국전쟁을 무엇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미국과 중국이 달랐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서 보이는 한국전쟁 사진이 전달하는 전쟁의 의미와 그 의미를 표상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전쟁 종전 후 발간한 사진화보집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전쟁의 의미와 그 의미를 사진으로 표상하는 방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내용은 미국과 중국에서 구축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의 내용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전쟁사진과 전쟁의 기억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2001/2003)에 의하면 전쟁의 기억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억압된 개인적 경험을 생각해내고, 기억을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여기에서는 잊혀져가는 과거를 드러내며 현재의 의미를 또 다른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보통 사람들의 과거를 주로 다루는 ‘구술사(oral history)’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기념 의례와 같은 공식기억(official memory)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란 현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경우에 따라 전통을 조작하고 창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식기억은 정부가 만드는 픽션의 일종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다.

구술사가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을 구술을 통하여 전체를 사실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기억 연구는 한 사회의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것이다(권귀숙, 2006, 34쪽). 즉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지 않고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현재와의 관련을 묻는 것이다. 기억 연구의 관점에서 과거란 현재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김영범(1999)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건의 종결과 함께 정지되어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 가운데 어떤 기억들은 용인되고, 다른 기억은 가공되고 변형되면서 때로는 공식기억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망각되거나 소멸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공식기억은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중 사회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억을 말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억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는 무엇이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재현투쟁, 즉 ‘기억의 정치’가 작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공식기억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것은 기념비, 기념관,

도상, 제의와 축제, 사진과 같은 매체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과거에 대한 기억의 내용이 개인 구성원들의 ‘생생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김형곤, 2007, 197쪽).

아스만(Assmann, 1999/2003)의 ‘문화적 기억’ 개념에 따르면, 기억은 자연발생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을 지닌다. 기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가 형성된다. 기억을 전송하는 다양한 매체들 중 사진은 ‘한때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진실성을 전제로 하는 매체이다(이영준, 1999, 117쪽). 사진은 통념적으로 현실을 거짓 없이 옮겨놓는 장치로 파악되고, 기계적인 전사(轉寫)의 특성이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사람들은 사진의 진실성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사진 속의 광경이나 대상을 정확히 그대로 보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진은 사회적 기억을 구축하고 전송하는 주요한 시각매체로서 기억문화를 논의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골드버그(Goldberg, 1991, p.135)는 사진이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과거의 공공 기념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기념비가 차지했던 위치를 대신 차지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공공 광장에 설치되었던 말 탄 장군의 동상은 뉴스 매거진에 실린 맥아더 장군의 해안 상륙사진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것이다.

전쟁사진과 기억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이들은 전쟁에 대한 많은 사진들 중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몇몇 사진이 있고, 이들 선택된 소수의 사진이 어떻게 집단기억의 이미지가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젤리저(Zelizer, 1999)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사건, 즉 홀로코스트(holocaust)의 사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몇몇 사진들이 어떻게 집단기억의 이미지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젤리저는 홀로코스트 사진들이 사실에 대한 기록의 이미지에서 기억의 이미지로 전화(轉化)되어가는 과정을 사진이 찍혀진 장소, 대상의 정체성, 시간, 사진가 등에 대한 참조성(referentiality)이 약화되고 상징성(symbolism)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핀(Griffin, 1999)도 집단기억이 되는 전쟁사진의 특성을 상징성에서 찾고 있다. 집합기억이 되는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들은 전투현장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진실되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문화적/국가적 신화의 상징으로서 그 자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묘사된 전쟁사진 속에 있는 그림의 특수성과 세부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희생, 애국심 등과 같은 상징적 순간의 드라마틱한 요소, 감정적인 끌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전쟁사진들은 묘사(description)보다는 신화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상징과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핀과 젤리저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전쟁사진들은 집합기억의 표시로서 구성된 기념물들, 전시물들과 유사하게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상징으로서 역할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 특성상 한계가 분명한 상징을 제공하는 일이 흔치 않다. 사진의 상징을 읽는 독자는 다양한 해석 사이에서 망설일 수 있다. 특히 사진은 회화와 달리 작가의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는 이의 상상이 펼쳐질 공간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상들을 사진 프레임 밖에 배치하여 의미의 분산을 방지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여러 장의 사진을 묶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사진화보집과 같이 여러 장의 사진들이 묶여져 있을 때, 한 장의 사진이 전달하기 어려운 추상적 관념을 전달하기가 용이하다. 한정식(2004, 239쪽)은 묶음사진의 이러한 특성을 “한 장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사진이지만 두 장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 방향이 설정되게 마련인 것이다. 공간에 찍힌 임의의 한 점에는 방향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점 이외의 다른 위치에 점이 하나 더 찍힘으로써 비로소 그 점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의 상징적 의미는 어떠한 주제에 관한 여러 개의 사진들 중에서 특정한 사진을 골라내고 이를 의도한 순서에 입각하여 배열하는 선택작업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에 관련된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한정된 숫자의 사진들을 골라내고, 이를 의도한 바에 따라 배치해서 보여주는 한국전쟁 사진화보집 속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특정한 방향으로 기억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 사진화보집에 대한 분석은 한국전쟁에 관한 공식적인 기억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여기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사진화보집은 1954년에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에서 참전 기념으로 발간한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와 1959년에 중국 해방군화보사에서 발간한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이다.<sup>1)</sup> 한국전쟁에 관한 다양한 사진화보집들 중 2권의 사진화보집을 선정한 것은 필연적으로 ‘대표성’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것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대개 사진화보집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에 보관도 잘 되어있지 않고(김형근, 2006, 38쪽), 발간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다.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두 권의 사진화보집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50년대에 발간된 것으로 참전 군인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관에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자국 군대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형성되는 출발 시점에 발간된 것이고,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이유로 이 두 권의 사진화보집이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는 미군과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록으로서, 시기별로 한국전쟁을 조감해 볼 수 있는 사진과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매튜 리지웨이 장군과 마크 클라크 장군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정기보고서를 편집해서 신고 있다. 이것은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VFW, Veterans of Foreign Wa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참전 기념호(memorial edition)로 1954년에 출판한 것으로, 1951년 봄부터 1953년 휴전 때까지의 전황을 9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전쟁정책은 ‘제한된 전쟁(rationed war)’ 부분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서

1) 이들 두 권의 사진화보집은 눈빛출판사에서 각각 『그들이 본 한국전쟁 3』(2005)과 『그들이 본 한국전쟁 1』(2005)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리고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에 대한 분석내용은 김형근(2006)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있는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다.



제한된 전쟁정책, 즉 완전한 군사적인 승리를 얻는 데에는 장애물이 되지만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의 우방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명백히 보여주는 것”(p.8)이다. 사진은 미군 소속 사진병과 군속 사진가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항공사진은 미 공군이 촬영한 것이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은 중국 해방군화보사(解放軍畫報社)에서 1959년 발간한 사진화보집이다. 중국 해방군화보사는 현재 해체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이 책은 1958년 중국군이 북한에서 완전 철수한 후 중국군의 북한에서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한국전쟁 기간 중 중국군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다룬 거의 유일한 사진화보집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조선을 도우며 죽음과 삶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네, 미국에 맞서서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었네”라는 발간사의 한 구절처럼, 여기에서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규정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책에는 사진과 함께 마오쩌둥, 저우언라이의 한국전쟁 전략방침에 관한 글들이 중간중간에 실려 있다. 사진이 보여주는 전쟁 시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진은 전쟁의 각 시기별로 구분해서 보여지고 있다.

## 2)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 된 사진화보집은 여러 장의 사진이 정해진 순서대로 제시되면서 전쟁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화보집에 대한 연구방법은 계획된 순서에 맞춰 제시되는 여러 사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째, 사진화보집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화보집의 사진 전체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내용분석을 통해 중심 피사체별 분류, 중심 피사체의 국적과 행동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별 사진이 아닌 사진화보집 전체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진화보집에서는 개별 사진들이 가지는 의미보다 여러 개의 사진들이 연속적으로 편집되어 나타내는 의미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진화보집 전체를 관통하는 스토리의 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 사진의 주제별 분류방법, 발간시기, 엮은이의 의도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진의 시각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은 기억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시각화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사진의 앵글, 구도, 대상의 시각화 범위 등의 기본적인 시각화 요소 분석을 통해서 각 사진의 시각적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두 사진화보집의 특성을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전쟁의 의미와 그 의미를 사진으로 표상하는 방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그들이 본 한국전쟁 1』(2005)의 ‘일러두기’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중국사진사와 인민해방군사 등의 책에서 한국전쟁 기간 중 중국군의 활동을 다룬 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 4. 사진화보집의 내용과 시각적 특성

### 1) 화보집 사진의 내용

여기에서 분석대상이 된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와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에는 각각 534장과 261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사진들을 군인, 민간인, 무생물의 3가지 중심피사체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에는 전체 사진 중 군인을 중심피사체로 한 사진이 341장(63.9%), 민간인 사진 31장(5.8%), 무생물 사진 162장(30.3%)이 있었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에는 군인을 중심피사체로 한 사진이 157장(60.2%), 민간인 83장(31.8%), 무생물 21장(8.0%)의 사진이 각각 있었다.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의 경우 전체적으로 군인과 무생물을 중심피사체로 한

<표 1> 중심피사체 군인에 대한 내용분석

화보집 구분	국적	사진 수	비율	행동	사진 수	비율
<i>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i>	미국	269	78.9%	전투	40	11.7%
				비전투	221	64.8%
				휴전회담	8	2.3%
	남한	10	2.9%	비전투	10	2.9%
	북한	6	1.8%	포로	2	0.6%
				휴전회담	4	1.2%
	중국	5	1.5%	포로	4	1.2%
			휴전회담	1	0.3%	
유엔	44	12.9%	비전투	29	8.5%	
			전투	2	0.6%	
			휴전회담	13	3.8%	
공산군	7	2.1%	포로	4	1.2%	
			휴전회담	3	0.9%	
계		341	100%		341	100%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	중국	111	70.7%	전투	40	25.5%
				비전투	68	43.3%
				죽음	3	1.9%
	미국	17	10.8%	전투	1	0.6%
				비전투	3	1.9%
				포로	12	7.6%
				휴전회담	1	0.6%
남한	2	1.3%	포로	2	1.3%	
북한	2	1.3%	전투	2	1.3%	
유엔	1	0.6%	휴전회담	1	0.6%	
중조인민군	24	15.3%	전투	4	2.5%	
			비전투	19	12.1%	
			휴전회담	1	0.6%	
계		157	100%		157	100%

사진의 비중이 높고, 민간인을 중심피사체로 한 사진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의 경우 군인을 중심피사체로 한 사진의 비중이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와 같이 제일 높고, 대신 무생물을 중심피사체로 하는 사진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의 경우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보여주는 사진이 많은 반면 전쟁을 겪는 한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고,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의 경우 중국과 북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상대적으로 많고 무기를 보여주는 사진이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1>에 있는 중심피사체 군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의 경우 미군의 비중이 78.9%로 가장 높았고 유엔군 사진이 12.9%를 차지했다. 나머지 남북한, 중국, 공산군<sup>3)</sup>

<표 2> 중심피사체 민간인에 대한 내용분석

화보집 구분	국적	사진 수	비율	행동	사진 수	비율
<i>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i>	남한	23	74.2%	피난	1	3.2%
				일상생활	8	25.8%
				전쟁고아	14	45.2%
	미국	3	9.7%	여배우 군대방문	1	3.2%
				기자 인터뷰	1	3.2%
				정치활동	1	3.2%
	일본	1	3.2%	미군 환영행사	1	3.2%
	기타	4	12.9%	휴전회담 촬영	2	6.5%
				한국 지원	1	3.2%
				휴전협정 공표	1	3.2%
계		31	100%		31	100%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	북한	38	45.8%	죽음	4	4.8%
				일상생활	4	4.8%
				환영/환송	12	14.5%
				중조 협력	10	12.0%
				추모	2	2.4%
				투쟁결의	3	3.6%
				정치활동	3	3.6%
	중국	37	44.6%	죽음	1	1.2%
				일상생활	2	2.4%
				시위	3	3.6%
				인민군 지원	11	13.3%
				정치활동	8	7.6%
				경축/환영	9	10.8%
입대 지원	3	3.6%				
제3국	4	4.8%	시위/위원회	4	4.8%	
미국	1	1.2%	정치활동	1	1.2%	
계		83	100%		83	100%

3) 화보집에서 국적을 밝히지 않고 공산군으로 묘사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공산군으로 분류하였다.

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미군 사진의 경우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훈련을 받고, 전투준비를 하고,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등의 비전투 행동을 하는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투에 참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그리 많지 않았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의 경우 중국군 사진이 70.7%를 차지해 제일 많았고, 중국군과 북한군이 나란히 중심피사체가 된 중조인민군 사진이 15.3%를 차지했다. 중국군 사진의 경우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에서의 미군과 마찬가지로 비전투 행동을 하는 사진의 비중이 제일 높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국군의 전투 행동을 보여주는 사진이 25.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미군 사진이 전체의 10.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진들 대부분은 미군 포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중심피사체가 된 사진의 경우,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에서는 남한 주민의 사진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한 주민을 보여주는 사진들 중에서

<표 3> 중심피사체 무생물에 대한 내용분석<sup>4)</sup>

화보집 구분	국적	사진 수	비율	대상 분류	사진 수	비율
<i>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i>	북한	25	15.4%	도시/시설물	21	13.0%
				무기	1	0.6%
				군사시설	3	1.9%
	미국	128	79.0%	무기	108	66.7%
				보급품	8	4.9%
				기계설비	10	6.2%
				그림/지도	2	1.2%
	남한	3	1.9%	포로수용소	1	0.6%
				농촌	1	0.6%
				군사시설	1	0.6%
유엔	6	3.7%	병원선	1	0.6%	
			휴전회담장	4	2.5%	
			참전기념메달	1	0.6%	
계		162	100%		162	100%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	북한	5	23.8%	도시/시설물	2	9.5%
				농촌	2	9.5%
				군사시설	1	4.8%
	중국	8	38.1%	도시/시설물	1	4.8%
				농촌	2	9.5%
					무기	5
남한	1	4.8%	신문기사	1	4.8%	
미국	6	28.6%	무기	6	28.6%	
유엔	1	4.8%	휴전회담장	1	4.8%	
계		21	100%		21	100%

4) 여기에서는 피사체의 행동 대신 피사체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상 분류’ 범주를 포함시켰다. 무생물이라는 것이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범주이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은 전쟁고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부분 미국이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었다. 전쟁고아 사진을 제외하고 나면, 전쟁을 겪는 한국 국민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거의 없었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의 경우, 중심피사체가 일반 민간인인 사진 중에서 북한 주민(45.8%)과 중국 주민(44.6%)을 중심피사체로 하는 사진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다. 북한 주민들이 중심피사체로 찍힌 사진들에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군을 환영하고 환송하거나 중국군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에 의해 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도 4장 있었다. 이러한 사진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정당성을 시각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민간인들이 중심피사체로 등장한 사진에서는 인민군 지원을 자청하는 중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11장으로 가장 많았고, 정전을 경축하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중국군을 환영하는 사진도 9장이 있었다.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도 8장이 있었다.

중심피사체가 무기나 시설물, 도시의 모습 등 무생물인 경우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에서는 미국에 속한 것이 7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경우 미군의 우세한 무기를 보여주는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존재로서 상대편보다 우월한 성능의 무기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시/시설물, 군사시설 등을 보여주는 사진이 15.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대부분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의 경우, 무생물을 중심피사체로 하는 사진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는데, 그 중에서는 미군 무기를 보여주는 사진이 6장(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파괴된 무기이거나 세균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무기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 중국군의 무기를 보여주는 사진은 5장(23.8%)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군의 공습에 의해 파괴된 북한의 도시/시설물 사진을 통해 북한이 전쟁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것을 통해 중국의 전쟁 개입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2) 스토리 구성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는 미군과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록으로서, 시기별로 한국전쟁을 조감해 볼 수 있는 사진과 유엔군 총사령관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정기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1951년 봄부터 1953년 휴전 때까지의 전황을 보여주는 데 충실하고 있다. 화보집에 실린 사진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일관된 흐름 속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돌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미군이 참전해야 했던 타당한 이유, 그리고 미국 전쟁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도 사진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원인-과정-결과로 이어지는 일관된 스토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굳이 스토리를 찾는다면 머나먼 이국의 전쟁에 미군이 참가했고, 우수한 무기와 화력, 군인들의 전투 능력 때문에 우세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모습과 미군의

5)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에게 휴전협상 지연시 원자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을 계속 가했을 뿐더러 북한과 만주에 대한 공중 폭격을 격화시켰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1953년 5월 중순, 미군 폭격기들은 평양 부근의 댐들을 연속으로 폭파하여 평양 시내를 홍수에 잠기게 함과 동시에 주변 평양 지역의

무기를 보여주는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1951년 이후부터의 기록이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 시작부터의 이야기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한 남한의 피해, 어려운 일상생활, 피난 등을 보여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의리 있는 우방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고, 시기별 전황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다. 전황보고서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의 우위, 특히 공중전에서의 우월성, 북한에 대한 집중적인 항공 폭격 등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에서는 전쟁의 명분, 가치 판단 같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들의 모습과 우세한 무기, 보급 등에 힘입어 유리하게 전개됐던 전쟁의 상황들을 보여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은 중국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부터 철수하기까지의 시기 동안의 사진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의 사진들은 크게 4가지 시기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각 시기별 소재목들은 “1.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 2. 미국이 종이호랑이임을 밝혀내다/ 3. 동방 평화의 전초를 지키다/ 4. 영예와 우정을 가득 싣고 돌아오다” 등이다. 제목에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걸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1.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에서는 평화로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에 맞서 중국이 참전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평화로움, 미국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도시와 학살의 장면들을 담은 사진을 차례대로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참전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중국 노동자들이 앞 다투어 지원군 참가 서명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중국의 참전이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6)</sup>

‘2. 미국이 종이호랑이임을 밝혀내다’에서는 중국군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열세의 장비로 우세한 장비를 지닌 적에게 승리하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북한 국민과의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이 많다.<sup>7)</sup> 이외에도 인간적 대우를 받는 미군 혹은 포로들, 조선군과의 협력,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미국의 세균탄 투하 사실 폭로, 정전 경축집회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제시되고 있다.

‘3. 동방 평화의 전초를 지키다’에서부터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포로 송환과 지원군의 귀국, 미국의 정전 위반 사례, 북한 국민과의 우호 관계 등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실려 있다.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가 전쟁이 끝나기까지의 사진들만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여기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북한의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중국군의 모습 등을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작물을 싹 쓸어버렸다(박명림, 1989, 204~205쪽). 이처럼 미국은 휴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군력 우위에 바탕한 군사적 능력의 우세를 과시하면서 휴전협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하였는데, 사진화보집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다.

6)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현수(2003)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참전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군대에 의한 지원군(支援軍)이 아니라, 중국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7)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은 지역 인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만 수행이 가능한 인민전쟁 전술을 펼쳤기 때문에 북한 인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박세길, 1988, 222~223쪽).

‘4. 영예와 우정을 가득 싣고 돌아오다’에서는 중국군이 전쟁 기간 동안 구축했던 지하장성과 초소들에 대한 인수인계, 북한군과의 아쉬운 이별, 평양에서의 환송, 조국에서의 환영, 가족과의 만남 등을 담은 사진들이 실려 있다. 이처럼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에는 한국전쟁이 원인-과정-결과를 거치는 한 편의 잘 짜인 이야기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중국군 참전의 정당성, 중국군의 애국심, 국제주의 등의 이념적 가치가 담겨져 있고, 이것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시각적 특성

사진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진 속의 피사체를 시각화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의 앵글, 구도, 대상의 시각화 범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화 요소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기에서는 화보집의 한국전쟁 사진들이 기록성과 상징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 중에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줄리(Joly, 1994/2004, 251쪽)는 상징성이 강한 사진이 제시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담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립 상태의 담론이 아닌, 특정한 방향으로의 지지 혹은 반대를 유도하는 논쟁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 기록성이 강한 경우에 사진은 피사체와 사진이 찍힌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상징성이 강한 사진에서 정보는 사진 뒤로 사라져 버리고, 배경도 잘려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대개 사진의 주요 모티프만이 강조되는 사진이 상징성이 강한 사진이 된다.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군인들 집단을 보여주고 있고, 전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인물들의 얼굴 표정을 잘 알아볼 수 없는 롱샷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많았다. 피사체의 행동, 표정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사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림 1> 북한의 침략 후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미 보병대<sup>8)</sup>



8) 사진 캡션의 내용은 사진화보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아래에 있는 다른 사진들의 캡션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기록성이 강한 사진의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의 캡션도 촬영시간, 공간, 피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충실하고 있다.

앞에 있는 <그림 1>의 사진은 심도가 깊은 롱샷으로 촬영되어 사진 전체에서 원근법적 구도가 잘 나타나 있다. 시선의 소실점에 다다르면 원경에 후지산이 보인다. 배경을 통해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사진에 나타난 군인들의 모습에서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담은 얼굴 표정을 볼 수 없고, 그래서 군인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없다. ‘일본에서 훈련을 받는 미군의 모습’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서 보여줄 뿐이다.

<그림 2>는 전투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전투기 조종사를 one-shot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화보집에는 이런 사진이 21장이나 실려 있다. 영웅적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사진이지만, 전투기의 모습이 사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투기의 역할도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사진 왼쪽 하단에는 전투기의 세부적인 부속품까지 다 드러나 있어서 시선을 분산시킨다. 그리고 아이레벨 앵글을 사용하고, 조종사의 웃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웅적인 상징정보보다는 친근감을

<그림 2> 제51전투요격기연대의 로버트 무어 대위는 1952년 4월 3일 한국전에서 아홉 번째 제트 에이스가 되었다.



<그림 3> 드높은 혁명 낙관주의로 정신무장한 지원군 전사들. 전투 중의 짧은 짬에 참호 안은 손풍금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느끼게 하는 사진이 되고 있다.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에는 연출된 기념사진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국군 참전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연출사진들이 주류를 이룬다. 내면적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룡샷보다 화면 사이즈가 축소된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진에는 안정된 구도 하에서 사진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중심적인 피사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사진의 프레임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사진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선전을 위해 신중히 선택된 것으로서 체제 수호와 홍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캡션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에 사진에 특정한 방향의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캡션은 짧은 정보의 기록이 아니라, 긴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3>은 군인들의 모습을 단체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중심 피사체를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군인들이 있는 장소가 동굴 속이라는 것 외에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사진 캡션을 통해서도 장소 정보보다는 ‘혁명 낙관주의’로 무장한 지원군 전사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설명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물들의 표정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그 인물들의 표정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연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얼굴 표정을 통해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우애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은 그 자체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그림 4>는 전쟁사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웅적인 군인의 모습을 담은 one-shot 사진이다. 이 사진의 경우 인물에 대해 중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인물 밑으로 보이는 비행기는 사진 속의 전쟁 영웅이 전투기 조종사라는 걸 알리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카메라 앵글은 하이 앵글을 취하고 있어서 피사체가 되는 중국 공군 영웅의 모습을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그림 4>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중국 인민지원군 공군은 싸울수록 강해졌다.  
공군 영웅 장지후이는 미국의 ‘에이스’ 조종사인 데이비스를 격추시켰다.



알 수 있다.

각 화보집에서 대표적인 2장의 사진을 사례로 들어 시각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명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의 사진은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주로 기록성이 강한 사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비해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의 사진은 중국군이 얼마나 진지하게 전쟁에 참여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속에서 배경은 잘려져 있고, 중심피사체가 표현하는 중요한 모티프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징성이 강한 사진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5. 결론

앞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발간된 한국전쟁 사진화보집을 비교 분석하여, 각 사진화보집이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전쟁의 의미와 그 의미를 사진으로 표상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 다른 만큼, 사진을 통해 표현되는 한국전쟁의 기억도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 발간된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일관된 스토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우세한 전쟁 상황을 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사진들도 상징성보다는 기록성이 강한 사진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 발간된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일관된 스토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은 한국전쟁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개별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시각화하는 상징성이 강한 사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화보집 분석에서 드러난 차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한국전쟁 소설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나는

차이들과 매우 유사하다. 정연선(2003)에 의하면 미국의 한국전쟁 소설에서 전쟁은 사악한 제도나 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 현상으로 나타난다. 각 병사는 그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참전했을 뿐이고, 그 전쟁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싸울 뿐이다. 한국전쟁은 “미군 병사들이 단순히 싸우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싸운 전쟁”으로는 첫 번째 사례였으며, 싸워야 할 전쟁 명분이 없는 가운데 미군 병사들은 “전통적인 전문직업군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전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중국 소설가 양삭(楊朔)이 쓴 한국전쟁 소설 『삼천리 강산』을 분석한 조대호(2003)는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인의 주된 시각이 “조국과 인민, 평화에 대한 지원군의 사랑과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정신”과 같은 전쟁 명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국전쟁 소설에서는 노동자 병사들의 인간미와 이를 통한 사회주의 우월성, 지원군 병사와 조선 병사와의 만남을 통해 무산계급의 국제주의를 표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소설에서는 영웅적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한국전쟁 소설에 대한 분석내용이 사진화보집에 대한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전쟁의 명분에 대한 표현 없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모습을 기록한 *Pictorial History of the Korean War*, 이에 비해 전쟁의 명분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우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한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의 모습은 소설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기억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진은 소설과는 다른 매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화보집은 대부분 시간 순서에 따라 사진을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은 많은 사진들을 파노라마처럼 스쳐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한국전쟁 전체를 조망하게 된다. 파노라마적 시각은 시각 세계의 중심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원근법적 시각 주체의 조건과는 상이하게, 주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가는 사진들에 인간의 시각이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사진은 추상적인 것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고 문화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사진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상징이지만, 사람들은 사진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사실로 기억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사진화보집의 사진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각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구성하고 재해석한 것이다. 공식기억으로서 한국전쟁 사진을 분석하는 이 논문의 목적은 전쟁의 진실된 모습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전쟁이 사실은 현재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재해석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이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Ⅰ 참고문헌

-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지성사.  
 김영범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그 역사화를 위하여.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제주 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김형곤 (2006).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사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40호, 192~220.
- 박명림 (1989). 한국전쟁사의 쟁점. 박명림·이완범 등 저. 『해방 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63~214.
- 박세길 (1988).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돌베개.
- 이영준 (1999). 사진의 담론과 역사의 담론.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2, 117~131.
- 정연선 (2003). 중단된 성전: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소설의 연구. 이기윤·신영덕·임도한 엮음.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국학자료원, 159~193.
- 정현수 (2003). 중국 자료로 본 한국전쟁 -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정치학회보』, 제6권, 129~166.
- 조대호 (2003). 楊朔의 한국전 참전문학 연구: <삼천리 강산>을 중심으로. 이기윤·신영덕·임도한 엮음.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국학자료원, 215~243.
- 한정식 (2004). 『사진예술개론』. 눈빛.
- 藤原歸一 (2001). 『戦争を記憶する: 廣島・ホロコストと現在』. 이숙중 역 (2003). 『전쟁을 기억한다: 히로시마·홀로코스트와 현재』. 일조각.
- Assmann, A. (1999). *Erinnerungsäume*.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 Goldberg, V. (1991). *The power of photography: How photographs changed our lives*. New York: Abbeville Press.
- Griffin, M. (1999). The great war photographs: Constructing myths of history and photojournalism. In B. Brennen & H. Hardt (Eds.). *Picturing the past* (pp.123~157).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all, S.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Publications.
- Joly, M. (1994). *L'image et les signes*. 이선영 역 (2004). 『이미지와 기호』. 서울: 동문선.
- Sontag, S. (2003).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2004). 『타인의 고통』. 이후.
- Zelizer, B. (1999). From the image of record to the image of memory: Holocaust photography, then and now. In B. Brennen & H. Hardt (Eds.). *Picturing the past*(pp.98~121).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투고일자: 2009.8.26, 수정일자: 2009.10.8, 게재확정일자: 2009.10.17)

ABSTRACT

## The Official Memory of the Korean War through Photographies in America and Red China

Hyung-Gon Kim\*

This study explored the official memory of Korean War through the photographs of pictorial history book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wo books of pictorial history that were published in America and China. Two books are *Pictorial History of Korean War* and *The Glories of the People's Army of China*. This study investigated symbolic meanings of the Korean War photographs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visu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official memory of Korean War in America and China. In *Pictorial History of Korean War*, the superiority of military strength was the memory of Korean War. While in *The Glories of the People's Army of China*, the superiority of socialism was the memory of Korean War. The Korean War photography actualized particular interpretations on Korean War.

Keywords: Korean War, photography, official memory, symbolism

---

\* Associate Professor(Dept. of Mass Communication, Tongmyong University)